



제목	Decline and Fall of the Sasanian Empire: The Sasanian-Parthian Confederacy and the Arab Conquest of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Tauris
발행일	2017. 3. 30.
저자	Parvaneh Pourshariati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552
ISBN 또는 ISSN	978-1784537470

내용 요약

이 책은 그렇게 강력하고 안정적인 사산제국이 7세기에 아랍 군대에게 그렇게 재빨리,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정복되었는가 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이다. 사산제국의 쇠퇴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거침없이 돌진하는 아랍의 강력한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인한 아랍 군대에 맞서는 사산조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산제국의 쇠퇴와 붕괴의 원인을 내적인 약화에서 찾았다. 분권화된 왕조 체제는 사산조-파르티아의 동맹에 기인하는데, 그 체제가 제국 붕괴의 씨앗이었다. 이런 연맹체제는 곧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 연맹의 해체는 제국의 운명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다.

1장은 사산조의 가계도에 관한 것이고, 1부 정치사 부분에서 2장은 야즈드기르드 1세(Yazdگرد I)에서 후스로우 2세(Khusrow II)까지의 정치사를 상술하였다. 3장 아랍의 이란 정복에서는 아르다시르 3세(Ardashir III)에서 야즈드기르드 3세(Yazdگرد III)의 정복 과정, 4장은 타바리스탄 지역의 왕조 정책을 서술하였다. 2부 종교적 현황에서 5장은 아베스타 이후, 정통교리와 이단, 미트라교 등 사산조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6장은 쿠라산과 타바리스탄 지역에서의 고대 후기 반란 과정을 설명하였다. 저자는 파르티아와 사산조의 구분을 명시하였다. 파르티아인들은 아랍인과 협정을 맺어 사산조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산조의 붕괴는 파르티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랍의 이란 정복은 민족들 간의 갈등의 과정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